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사역 소식 (2022년 이월)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 가운데 많은 목상을 하게 했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8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나사로의 집에 들러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바쁜 마르다를 뒤로 한 채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의 행동이 지극히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5살과 7살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중앙아시아에 들어와 사역을 한지 만 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이어 지금을 돌아볼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저희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소중한 시간과 후원과 사랑을 이곳에 드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저희의 삶과 사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의 중년의 삶을 이곳에 헌신하여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중고의 시간을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린 시절의 고향과 친구들이 없음을 느낄때에는 부모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여러 다양한 모양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나간 20년을 돌아보며, 생애의 남은 시간들도 이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기의 시간들

2005년과 2010년에 있었던 두 번의 시민혁명, 그리고 종교법 개정으로 이곳의 사역에는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허가를 받아 신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하던 저에게나 신앙 공동체를 섬기던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이 더 이상 공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 사역에서 손을 놓고, 공동체는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은 공동체가 해체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가득한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대로 담임 목회자 부부는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생들이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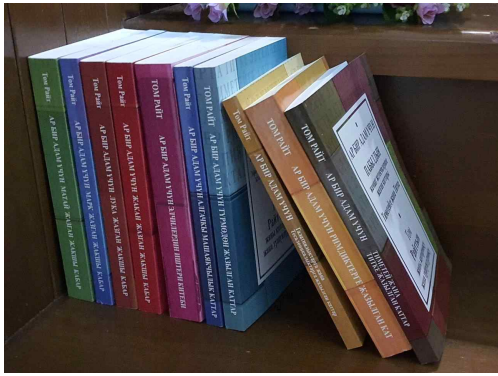
니다. 열정만 많았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사역자들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기간에는 목회자로 남을지 사회로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전임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공동체에 남았습니다. 벅뚜르 목사는 3명의 자녀들 두고 있지만 수년 전에 가장 큰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주말에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금요카페와 학생들 모임이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시골에서 올라와 정착한



가난한 지역에 ‘빅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모인 디아나는 신학교에서 졸업후 지금까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일반 직장을 가지기도 했지만,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귀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 왔습니다. 현재 오랜 기간 교무 행정일을 해오다가 은퇴한 타마라를 대신하여 그 업무까지 책임지며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와 신학교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번역 사역

이곳은 러시아어와 현지어 두가지 중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현지어만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학 자료들이나 신앙서적들이 러시아어로는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현지어로는 다양한 신학 자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주석 시리즈(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주석)를 현지어로 번역, 출간하려는 팀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3년동안 기초번역이 이루어졌고, 이후 신학 감수



작업과 편집, 검토를 통해 재정과 상황이 가능한 대로 책으로 출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번역 팀장로빈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온라인으로 감수작업을 하며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 초기에 한국어 교수사역을 할 때 학생이었던 파티마와 마하밭이 신학감수 작업을 함께 도와 재번역과 감수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두명의 현지인은 대학 졸업후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명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한명은 돌아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의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학생때 우리집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들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현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NGO 사역

“소망의 집”은 5년전에 구청 소유의 빈 공터에 있던 구조물에 지붕을 얹고 숙소와 화장실, 샤워실을 설치하여 노숙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시작한 사역입니다. 알렉산드르라는 현지 목회자가 매일 30여명의 시설 거주인들을 위해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거주할 곳 없는 이들이 지내는 지역으로 나가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 부부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웠지만 잘 이겨냈고, 지난해에는 딸이 한동대에 입학하여 장학혜택을 받을 기회가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소망의 집은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라 이미 절반은 구청에서 어떤 개인회사에 임대를 주어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공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두로 약속해 주는 이외의 서류상 허가는 어려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망의 집 허가 문제와 사역자 알렉산드르 목사 그리고 소망의 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사역은 한국어 방과후 교실입니다. 올해로 12년째인데 처음에는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이제는 이곳 현지인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를 포함하여 6명의 한국인 사역자들과 현지인 교사와 직원 4명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2회 온라인으로 한국어어를 가르치고, 매주 금요일에는 고려회관에 모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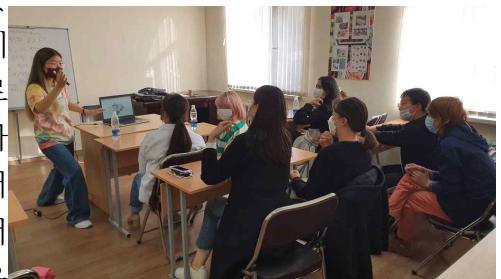


양한 활동과 한국문화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학교 성적도 좋고, 한국어도 잘 배워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가정환경이나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동역자들 모두가 이 사역을 통해 가르침과 돌봄의 과제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를 통한 석탄지원 사역은 정부의 마을 정보를 받아 매년 가을에 한차례씩 10개 마을과 노숙인, 고아원 시설에 겨울용 석탄을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도 10년정도 지원이 계속되었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마을과 가정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과 지원이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소망으로 전달되는 귀한 사역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유익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들 이야기

중앙아시아의 20년의 시간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0년 전에 5, 7살로 함께 들어온 두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현지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해서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두 아이를 잘 키워 좋은 재원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돕는 기관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곳에서 대학 과정을 하면서, 같은 동역자 같이 마음을 나누며 지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20년의 귀한 선물과 열매라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의 기도와 후원은 저희에게 늘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안되고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저희를 기억해주시는 오랜 시간의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현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 헤브론 & 김 엘레나 드림